작은 공간, 큰 감동, 배우들의 숨결… '소극장'에서 만나요

'광주소극장축제' 한달간 개최
공연일번지·지니아트홀 등 7곳
연극·오페라 등 8개 작품 공연

무대와 객석 사이 고작 몇 걸음, 배우의 숨결이 들리고 눈빛 하나로 감정이 전해지는 거리. 대극장에선 느낄 수 없는 밀도 높은 경험이 소극장이 주는 연극의 감동이다.

광주의 여름, 특별한 공간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1일 막을 올리는 '2025 제28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이달 말까지 펼쳐져 연극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축제는 한 달간 기분좋은극장, 공연일번지, 예술극장 통, 지니아트홀 등 광주 7개 소극장에서 이어진다. 주제는 '작은 공간, 큰 감동'. 연극, 창작극, 오페라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 8편이 무대를 채운다.

개막작은 ㈜플레이팩토리의 **'흉터'**. 기분좋은극장에서 1일부터 한 달간 장기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대학 시절 비극적인 사고를 되짚기 위해 다시 산을 찾은 두 남자,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미스터리한 산장. 서늘한 공포와 인간 내면의 죄책감을 담은 이 작품은 심리극의 긴장감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석봉준 극본·연출)

예린소극장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20세기 명작을 만나볼 수 있다. 극단 예린의 **'오발탄'**은 이범선의 동명 단편소설을 낭독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현실과 인간 군상을 날카롭게 그려낸다. 연극인 윤여송이 무대에 올라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과 총알처럼 흩어지는 삶의 조각들을 읽어내려간다.(이범선 원작, 윤여송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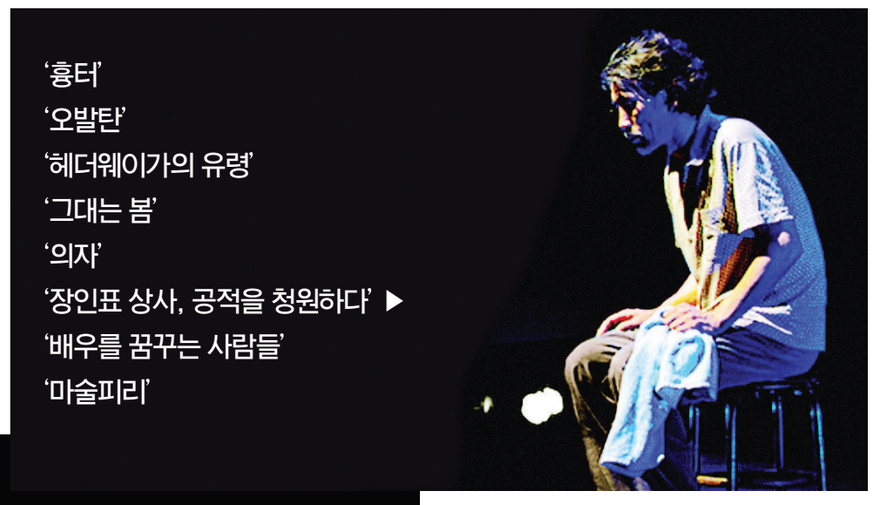
예술극장 통에서는 극단 청춘의 **'헤더웨이가의 유령'**(7~16일까지)이 무대에 오른다. 오래된 집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통해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이다. 기이한 존재, 무덤과 연결된 전화기, 100년 전 그림 속 여인 등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장치들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존 머레이 극본, 오설균 연출)

공연일번지에서는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두 작품이 연달아 관객을 만난다.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공연되는 **'그대는 봄'**은 치매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정을 지키려는 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낸다. 오랜 세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김정숙 극본, 임홍석 연출)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상연되는 작품은 외젠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 **'의자'**. 두 노인이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의자를 놓는 장면은 현대사회의 허무 혹은 본질적인 고독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정문희 연출)

씨어터 연바람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푸른연극마을의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원하다'**가 관객들을 만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명을 선택한 한 군인의 고백을 중심으로 오월의 진실과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풀어낸다. (채희윤 원작, 이당금 연출)

'흉터'
'오발탄'
'헤더웨이가의 유령'
'그대는 봄'
'의자'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원하다' ▶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
'마술피리'



'제28회 광주소극장축제'가 1일부터 한달간 광주 곳곳의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연극문화공동체DIC의 '그대는 봄' .〈광주소극장협회 제공〉

지니아트홀에서는 지니컬쳐의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15~16일까지)이 무대에 오른다. 오늘도 연습과 오디션을 거듭하며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들의 치열한 현실과 그 안의 유쾌한 에너지를 담았다. 꿈과 열정이 교차하는 무대 뒤의 풍경이 위트 있게 펼쳐진다.(박명진 극본·연출)

30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는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의 **'마술피리'**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소극장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밤의 여왕에 맞서 사랑과 지혜로 성장하는 왕자와 파파게노의 모험을 담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최덕식 연출, 박미애 지휘)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은 광주소극장축제는 1998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는 공연예술 전 분야로 영역을 넓혀 진행되고 있다.

지역 극단에게는 소중한 무대의 기회를, 관객에게는 연극 본연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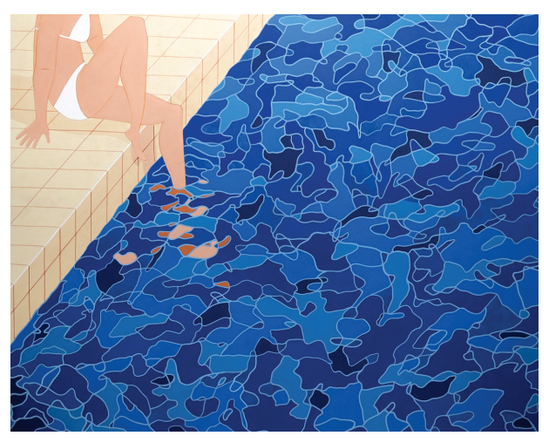
임홍석 광주소극장협회장은 "소극장은 단순히 작은 극장이 아니라 관객과 예술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의 진정성 있는 창작 무대를 통해 관객 여러분도 연극의 매력을 새롭게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각 3만원, 티켓링크·아트패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박영희 작 '여기가 제일좋아'

'여름 속 오아시스'



양세미 작 'hesitate'

박영희·양세미·이유빈·엄기준 작가
이달말까지,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제목부터 시원한 느낌을 준다. '여름 속 오아시스'전.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무의식적으로 더위를 피할 곳을 찾는다. 오아시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개막해 이달 말까지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시는 작품을 매개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 '여름 속 오아시스'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림은 시원함과 쉼을 환기한다.

전시에는 모두 4명 작가가 참여했다. 박영희, 양세미, 이유빈, 엄기준 작가는 저마다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예술적 사유와 감성을 전달한다. 관람객들은 마치 오아시스에 초대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박영희 작가의 '여기가 제일 좋아'는 풀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수영복 차림에 물갈퀴와 물안경을 착용한 남자의 모습이 푸른 물결에 비쳐 시원함을 더한다.

양세미 작가의 'hesitate'는 수영장에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한 여성의 모습을 초점화했다. 일렁이는 물결은 마치 작은 푸른 천 조각들을 이어붙인 듯 리듬감을 준다.

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8월 한달(매주 토요일) '바캉스 팔찌 만들기'가 진행되며 선착순 30명.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는 "전지 제목이 말해주듯 오아시스는 쉼과 여유를 상징한다"며 "잠시 전시장에 들러 개성적인 작품들이 전하는 '무더위 속 오아시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창의 삶과 소리 '조공례를 부르다'

국립남도국악원, 진도 세 명창 기리는 첫 무대…2일 진악당

조공례. 질박하고도 자연스러운, 두툼하고도 힘찬 그의 소리는 남도의 삶 그 자체였다. 소리꾼 아버지 조정옥에게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배우며 강강술래 놀이판의 선소리꾼으로 활약했고, 타고난 가창력으로 진도의 토속민요를 능숙하게 구사해 일찍이 주목받았다. 1974년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평생을 남도소리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에 바치며 진도의 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헌신했다.

명창의 삶과 소리를 기리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조공례를 부르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진도 출신 세 명창을 기리는 '진도 삼례(三禮) 시리즈'의 첫 무대로, 조공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무대에는 조공례 명인의 제자인 김용우와 그의 딸 박동매,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이 함께 올라 명창의 발자취를 소리로 되새긴다. 김용우는 정통 국악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악의 외연을 넓혀온 대표적인 소리꾼으로, 조공례의 소리를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는 인물이다. 박동매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로, 국내외 공연과 교육을 통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젊은 소리꾼 김용우'는 조공례 명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문을 열고, 김용우와 그의 밴드가 강강술래, 시선뱃노래, 대감거리, 절로소리 등 다양한 남도소리로 무대를 채운다.

2부 '조공례를 부르다'에서는 박동매와 남도들노래보존회,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단원들이 함께 남도들노래, 오곡타령, 진도아리랑을 선보이며 조 명인의 예술세계를 다시 무대 위에 되살릴 예정이다.

한편 '진도 삼례'는 진도 출신의 세 명창 김대례, 조공례, 채정례를 가리킨다. 조공례와 진도 씻김굿의 마지막 당골 채정례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명예보유자였던 김대례는 올해로 탄생 90주년을 맞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삼례 탄생주기 기념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공례 명창(오른쪽)과 제자 김용우.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박정경 국악원장은 "조공례 선생의 소리는 남도의 삶과 정서를 고스란히 품은 유산"이라며 "이번 공연이 그 깊은 울림을 다시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문화예술교육 '아이엠 쌤'

광주문화재단, 5~6일 전통문화관

'나를 담는 문화예술 이야기'.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진행하는 '아이엠 쌤'은 교과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5~6일 전통문화관 입석당에서 유·초·중등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몸과 소리를 통한 감정 표현'(신희흥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대표), '색채와 상징을 활용한 자아 탐색'(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문화예술교육 사례 공유'(김천응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전통 부채에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예술적 소통'(정명돈 한국화가) 등이다. 이번 연수에는 교장, 교감, 교사, 원감, 교육연구사 등 다양한 직군의 교원이 함께해 경험을 공유한다.

노희용 대표는 "교사들이 새 교육방식을 접하고 소통하며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아이엠 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문화예술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원연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